



“연기 갈증 있던 차에 ‘아모르 파티’ 만났죠”

가족이 전부인 여자와 성공이 전부인 여자, 인생 2막 레이스에 뛰어든 두 여자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펼쳐진다.

SBS TV는 오는 12일 새 아침일극 ‘아모르 파티-사랑하라, 지금’을 선보인다고 8일 예고했다.

이 작품에는 ‘정담동 스캔들’(2014-2015) 이후 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배우 최정윤(43)과 ‘야인시대’(2002-2003) 이후 거의 20년 만에 SBS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안재모(41)가 합류해 방송 전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품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안재모는 “야인시대 이후 타 방송사에서만 많이 불러주시더라”고 웃으며 “아모르 파티”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배태섭 PD님이다. 스무 살 때 PD님을 처음 뵈었는데 나를 인정하고 믿어주셨다. 또 최정윤 씨가 출연하신다고 해서 이 작품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재경은 아픔이 가장 많은 캐릭터라 그 아픔을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줄지가 가장 고민이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연기 하나에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가족에 대한 헌신의

최정윤, 6년만에 안방극장 복귀... 12일 첫방 일일아침극 주연 인생 실패·좌절 맛 본 사람들의 희망 찾아가는 이야기 안재모 “야인시대” 후 오랜만에 드라마 출연... 연기에 집중

최정윤은 현모양처에 지고지순한 내조의 여왕이지만 한번 돌아서면 무서운 외유내강형 도연회를, 안재모는 아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프로골퍼의 길을 포기한 채 홀로 어린 아들을 키워온 기러기 남편 한재경을 연기한다.

최정윤은 이날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너무 오래 쉬어서 연기에 갈증이 있어서 정말 하고 싶었다”면서 “시놉시스를 보고 나서 내 나이에 도연회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낼지 궁금했고, 인생에 교훈과 힐링을 줄 수 있는 작품 같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작품에는 모든 희로애락이 묻어있다. 캐릭터들도 하나하나 잘 살아있고 구멍이 없다. 6개월간 시청자들께서 충분히 즐거운 작

아이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악녀’ 강유나 역을 맡은 배슬기는 “그동안 드라마 속 악역들의 집합체 같은 캐릭터”라며 “표정도 변화무쌍하게 연기하다 보니 ‘진짜 이렇게 악한 여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 이미지 변신이 주목된다.

이 드라마에는 최정윤과 안재모, 배슬기 외에도 박형준, 윤미라, 김종구, 정애연, 김홍표 등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배 PD는 “인생에서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짧은 절망과 긴 희망을 이야기하겠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평일 오전 8시 35분 방송. /연합뉴스



서지혜(왼쪽)와 김정현

서지혜-김정현 열애설 부인 “친한 누나 동생 사이일 뿐”

배우 서지혜(37)와 김정현(31)이 8일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했다.

서지혜 소속사 문화창고 측은 “두 사람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라며 연애 전문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두 사람의 만남 사진에 대해서도 “김정현이 소속사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두 사람이 가까이 살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설명으로 미뤄볼 때 김정현이 곧 문화창고로 이적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했던 현빈과 손예진에게 실제 커플로 이어진 데 이어 같은 드라마에서 또 한 쌍의 커플이 탄생하나 했지만 양측이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연합뉴스

‘해양패권의 시대-회색바다’ KBS 10일 밤 방송

KBS 1TV는 오는 10일 밤 11시 40분 KBS부산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해양 패권의 시대-회색의 바다’를 방송한다고 7일 예고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해양 강대국 사이에 긴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해양 패권’이라는 국제정치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명했다. 내레이터로는 부산 출신이자 다양한 작품에서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보여준 배우 조진웅이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양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해양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주변국의 해양을 압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의 보호를 넘어 자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영토를 확장하고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고 미국은 끊임없이 터지는 해양 분쟁들 앞에서 기존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나리’와 밴드 ‘새소년’의 만남...클래버레이션 MV 선보여

노래 ‘자유’에 영화 ‘미나리’ 녹인 뮤직비디오 공개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삶을 그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영화 ‘미나리’와 밴드 새소년이 클래버레이션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새소년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에 따르면 새소년이 최근 발매한 곡 ‘자유’를 영화 ‘미나리’ 장면에 녹인 뮤직비디오가 지난 5일 공개됐다.

소속사는 ‘자유’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직면할 용기를 보여준 곡이라며 “음악과 영화의 세계관이 닮아있어 더욱 특별한 클래버레이션이 성사됐다”고 소개했다.

새소년은 “관객으로 영화 ‘미나리’를 만났을 때는 어려운 시대의 보편적 가족 공동체, 그 속에서

개척과 통찰을 찾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며 “그리고 재밌게도 비슷한 시기에 발매한 ‘자유’가 떠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극장을 떠난 뒤 며칠 뒤쯤 클래버레이션 비디오 제의를 받게 됐고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며 “좋은 작품과 섞여 또 다른 자유의 방향을 느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소년은 EP(미니앨범) ‘비적응’이 미국 유명 음악비평 웹진 피치포크(Pitchfork)가 선정한 2020년의 록 앨범 35선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차세대 밴드다. /연합뉴스



영화 ‘미나리’와 밴드 ‘새소년’ 클래버레이션 MV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르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